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 사자굴에서 스스로 나와라

어떤 스님이 조주선원을 떠나겠다고 하자 조주 스님이 물었다.  
“그대는 다른 데에 가서 혹시 남에게 ‘조주를 만났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학승이 말했다.  
“다만 ‘뵈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한 마리의 당나귀다. 그대는 어떻게 보겠는가?”  
학승은 말이 없었다.

因僧辭去 師云 聞黎出外 忽有人問 還見趙州否 你作麼生 祇對 云只可道見 師云 老僧是一頭驢 你作麼生見 僧無語

이때는 “일일부작 일일불식(日日不作 日日不食)하라”라고 말해야 한다.

어떤 스님이 설봉(雪峰) 스님이 있는데서 찾아왔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네. 내가 있는 장소는 한낱 난을 피할 장소일 뿐이야. 불법은 모두 남쪽에 있다. 그런데 자네 그곳에서 와놓고선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학승이 말했다.  
“불법에 어찌 남쪽의 것, 북쪽의 것이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는 혹 운거(雲居)나 설봉(雪峰)이 있는데서 왔다고 하더라도 다만 하나의 널판을 지고 다니는 사내일 따

름이야.”  
학승이 말했다. “그쪽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 무엇 때문에 간밤에 오줌을 썼는가?”  
학승이 말했다. “도달한 후라면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번에는 똥을 썼군.”

有僧從雪峰來 師云 上座莫住此間 老僧者裡 只是避難所在 佛法盡在南方 云佛法豈有南北 師云 直饒你從雲居雪峰來也 只是箇擔板漢 云未審那邊事如何 師云 你因甚夜來屎床 云達後如何 師云 又是屎尿

당시 조주 선사는 북방에 있었고, 그보다 남쪽에 선반이 널리 전파되고 있었다. 널판은 스승의 스승들을 기록한 승려들의 족보다. 예전에 남자들은 자기의 계보를 알릴 수 있는 널판을 가지고 다녔다. 진정한 남자라면 한 사람의 스승으로 족하다. 스승이 할 일은 제대로 가리키는 것이고,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스승을 알아보는 안목이다. 간밤에 오줌 싸고 똥을 싸는 것은 지저분한 일이다. 선사들은 남의 집 일에 간여하지 않는다. 설사 남쪽에 어떤 선사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해도 불법을 크게 그러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문중의 가풍으로 인정하고 만다. 그렇지 않으면 장삼을 입고 진흙탕에 들어가 싸우는 꼴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보았다.  
“나의 이곳에는 동굴을 나오는 사자도 있고, 동굴 속에

있는 사자도 있다. 다만 사자를 얻기가 어려울 뿐이구나.”

그때 어떤 학승이 탄지(彈指)함으로써 그 말에 응답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학승이 말했다. “사자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가 사자라고 말한 것도 이미 죄를 범한 것인데, 자네는 더욱 뛰거나 밟거나 하면서 사자의 흉내를 내는가?”

示衆云 我此間有出窟獅子 亦有在窟獅子 只是難得獅子 兒 時有僧彈指對之 師云是什麼 云獅子兒 師云 我喚作獅子兒 早是罪過 你更行趨路

한국 불교의 남자들은 누구든지 사자 새끼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사자의 굴에서 나와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어미 사자의 젖을 찾는 새끼로 만족하고 굴속에서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사자들이 모두 어미 사자처럼 늙어 가는데도 사자의 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탄지(彈指)까지는 좋았다. 그 뒤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을 때 대답이 중요하다. 이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조주 선사가 “오늘 하나의 사자 새끼가 하나 밖으로 나왔구나” 하고 말하겠는가? 여기에 적절한 대답이 있지 만 혹 여우가 사자의 흉내만 낼까 두려워 지금 당장 발설하지는 못하겠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46



###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전히 그 사람의 잘못이다

〈인연이야기(니다나 카타)〉

내게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밀의 행복이 있다. 아니, 비밀이라 할 것도 없다. 아는 분들은 다 안다. 그곳에서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비밀일 수 없다. 그러나, 남들이 잘 ‘하지’ 못하는 행복임은 사실이다.

바로 ‘남산 걷기’다. 이 남산은 우리 학교 밖에 있으면서, 우리 학교 재산이다. 아니, 우리 학교가 남산 속에 있다. 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 남산자락에 터를 잡아주신 우리의 선각자들에게 한없이 감사한 염(念)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점심시간이 되면, 나는 학생식당으로 가서 학생들에게 섞여서 “비밀방” 한 그릇을 비벼먹는다. 그 학생식당(상복원) 뒤에 남산으로 오르는 나무계단이 있다. 그 계단을 오르면, 남산 산책로와 만나게 된다.

요즘은 단풍이 곱다! 좋다. 금년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단풍은 낙엽으로 떨어져도 이쁘다”는 것이다. 알록달록 단풍은 땅에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알록달록하다. 산책로에 단풍이 떨어져서 수북이 쌓여 있다. 일부러 그 위를 밟고 간다. 가끔은 그 단풍 속으로 발을 넣어보기도 한다.

남산 산책로는 가을만 좋은 것은 아니다. 봄은 봄대로 개나리, 벚꽃 등이 활짝 핀다. 말 그대로 “꽃달궤 차리던 동네”가 된다. 어떤 사람은 이 남산 산책로의 “벚꽃이 여의도보다 더 좋다”고 말하였다. 산책로에서 들은 이야기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나무에 연두빛 물이 올라올 때도 참 좋다. 그 연두빛에 눈에 맞으면 내 눈이 다 맑아질 것 같다.

여름과 겨울 역시 좋지 않을 수 없다. 여름은 여름대로 나무들이 그늘을 제공해 주고, 겨울은 겨울대로 존재의 본래 면목을 보여준다. 별거벗은 나무, 그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공무원들 칭찬을 잘 안 하는 성격이지만, 남산 산책로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진심으로 칭찬하고 싶다. 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가꾸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관리라 하면 자연을 훼손할 우려가 많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오늘은 폐목으로 얇은 담장을 친 평상을 또 새로 놓아두었다.

작년부터인가. 이 산책로에는 물이 흐른다. 늘 흐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물이 흐르고 있다. 이 남산을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나는 살아왔다. 살고 있다. 자주 자주 떠오르는 말씀은 송나라의 천동여정(天童如淨)선사이다. “푸른 산과 흐르는 물을 보라.”

나는 이 남산 산책을 통해서, 그 덕분에 40대 후반을 별 문제없이 넘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걷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라면, 건강을 되찾고 나면 걷기를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는 그저 걷는 것이 좋다. 그저 걸어야 한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

그런데 늘 자주 이 길에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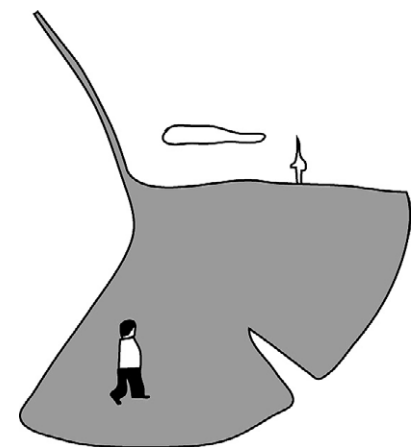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안타까워한다. 왜 사람들은 이 길을 걷지 않는 것일까? 우리 학교의 교수 교직원 선생님들 중에서 아마도 이 길을 걷는 분들은 10%나 될까? 하긴 나도 그랬다. 겨우 7-8년 전부터 걷기 시작하였을 뿐, 그 전의 7-8년은 걷지 않았다. 걷지 못했다, 라고 하지는 말자.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길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가지 않는 것일까? 길이 있음에도 우리가 걷지 않는다면,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길의 잘못인가, 나의 잘못인가? 길은 아무 잘못이 없다. 잘못은 내게 있을 뿐이다.

그 ‘길’은 스승님, 바로 우리 부처님이다. (이미려 옮김, 『붓다의 과거세이야기』, 민족사, 29쪽)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41

번뇌·의·근본번뇌 만·의·악견

### 괴로움 돌아보면 번뇌 털어낼 수 있다

탐욕[貪]·분노[瞋]·어리석음[癡]에 이어 근본번뇌의 다음 세 가지는 만(慢)·의(疑)·악견(惡見)이다. 이중에 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그 보다 높고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낮추는 마음이다. 이 세상에서 비교하거나 비교 당함으로써 괴로움을 느껴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비교에 의한 괴로움은 세상의 수많은 번뇌 중에서도 그 비중이 크고 그로부터 또 다른 번뇌들이 파생되기도 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만을 근본번뇌로 분류했다.

이와 같이 남과 비교해서 마음이 스스로를 더 잘났다고 생각하게 하는 만(慢)에는 다시 3만, 7만 등의 여러 종류가 있다. 3만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아승만(我勝慢)과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불구하고 자신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아등만(我等慢), 자신보다 매우 우월한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은 조금만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아열만(我劣慢)을 말한다. 7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 가지는 우월감인 만(慢), 자신과 동등한 자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자신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과만(過慢), 또한 자신보다 뛰

어난 사람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는 만과만(慢過慢), 오온(五蘊)의 일시적 화합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변하지 않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된 아만(我慢), 아직 깨닫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증상만(增上慢),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자에 대해 자신이 조금만 열등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비만(卑慢), 덕(德)이 없는데도 스스로 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만(邪慢)이 그것이다. 어떤 종류의 만이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속의 큰 번뇌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의(疑)는 의심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승의 삼보(三寶)를 의심하고 선과 악의 업보(業報)를 의심하고 삼세인과(三世因果)를 의심하고 사제(四諦)와 연기(緣起)를 의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근본원리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진리에 대한 의심이므로 의는 고로 부터의 해탈에 장애가 되는 번뇌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견(見)은 본래 심사숙고해서 형성된 견해를 의미하지만 불교에서는 주로 잘못된 견해로서의 근본번뇌를 말한다. 이 견에는 유신견(有身見)·변집견(邊執見)·사견(邪見)·계금취(戒禁取)·견취(見取)의 다섯 가지가 있

다. 이 중에 무상한 오온으로 이루어진 신체에 대해 나와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견해를 유신견이라 한다. 또한 이 세상이 영원하다는 생각과 끊어진다고 하는 생각, 유한하다는 생각과 무한하다는 생각, 여래는 사후에 존재한다는 생각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 등의 극단적인 견해에 치우쳐 있는 견해는 변집견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견은 모든 잘못된 견해를 총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특히 인과를 부정하는 잘못된 생각을 사견이라고 한다. 인과를 포함해서 연기를 부정하는 한 불교의 가르침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견취는 배타적인 이론에 대한 배타적인 믿음이다. 자신들이 믿는 교리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잘못했다는 생각은 심지어 정쟁을 일으켜 매우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번뇌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금취는 고행 등이 해탈을 얻기 위한 바른 수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탈을 얻고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진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를 말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괴로움들에 대해 되돌아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그것만으로도 갖가지 마음의 움직임만이나 해어질 수 없이 많은 번뇌 중 아주 많은 부분을 털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日 興 곡 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약사여래불의 가피로 몸을 살린다**

**약사여래불 치유도량 활인사**

**세척력이 강력한 유황 한방비누, 활피모**

- 스님께서 수년동안 연구 개발하고, 박정아 의학박사(여한약사회장, 경희대외래교수)가 추천하는 전통방법으로 만든 유황특수 비누입니다.
- 특징 : 유황이 들어간 천연비누, 무방부제, 무자극, 무색소, 고급비누원료 사용 폼크리닝 대응, 건강피부 유지, 애완건 냄새제거
- 가격 : 특별할인가 2만원

**명리학 학인 모집**

**활인사 주지 덕운 합장 02)3487-2311**

**초음파 방역 시스템**

**기화방제소독, 방충, 훈증**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각종 해충 및 환경미로부터 예방과 살충에 특화된 첨단 제품으로 문화재, 박물관, 사찰, 한옥, 전원주택, 목구조물, 공공장소, 기타에 사용합니다.

**방역, 방재, 소독기술**

초음파 기화방역소독기술은 정부에서 시행한 기술 개발과제로 상용화하여 보건복지부 보건기술인증 (HT제 2008-0001/36호)을 받은 환경보존형 공간 소독기술입니다.

- 초음파 기화방역소독기술 (내부부사)**  
초음파 기화방역소독기술은 열(高温)에 의한 기체화 방식이 아닌, 연속다중 초음파를 이용하여 방역약품을 실온에서 공기보다 가벼운 극 초미립자 상태로 기화하는 환경보존형 공간방역소독기술인 보건복지부 보건 신기술인증기술입니다.
- 초음파 연무방제소독기술 (외부부사)**  
초음파 연무살균소독기는 일반적인 노즐과 공기충출방식이 아닌, 압전(PIEZO)진동형 V-Hom Nozzle를 이용하여 방역소독약품을 분포도가 균일한 초미립자 상태로 분사하는 공간 살균, 방역 소독기술입니다.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  
031)451-6232 / 팩스 031)451-6238

**설법·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대역특혜**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대역제한**

- 총 합 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장소특혜**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강사소개**

[설법연수원 회장 우물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가운솔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면시술사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물 김철회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 (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서울 남부구치소 교정(중고)위원  
사)한국산업가운솔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상재 이수자

**한국설법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